

'바람이 분다', 신선함과 생소함 사이



알츠하이머와 특수분장 소재가 만난 바람이 분다 가 애뜻한 멜로

알츠하이머와 특수분장 소재 만남

그리기에 성공할까.

지난 28일 방송된 JTBC '바람이 분다'에서는 이수진(김하늘 분)이 권도훈(김우성)과 이혼하기 위한 귀책사유 만들기기에 나서는데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권도훈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시작부터 반전을 알렸다. 그는 회사 동료의 연락처는 물론 지하철 노선도까지 모두 꿰고 있었고 의사에게 "왜 제가 알츠하이머죠?"라고 물었다.

의사는 그에게 "나이가 몇살이냐"라고 물었고, 권도훈은 "35살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진료기록 속 권도훈의 나이는 38살이었다.

이미 자신이 알츠하이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권도훈, 그리고 권도훈의 새어머니는 이를 이용하여 이혼을 하지 말라고 권유했다. 새어머니는 그에게 "아픈 것도 속이고 이혼할 생각이나 유산문제 정리 될 때까지 나랑 한 약속 지키자. 아니면 수진 씨가 도훈 씨 병 알게 될 것이다"라며 협박했다. 또 "수진 씨가 자기 병 알아도 이혼해줄까? 2달만 잡아"고 말했다.

결국 지난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수진에게 병당했던 이유와 이혼을 반대했던 이유가 모두 밝혀진 것

아무 것도 모르는 이수진은 친구와 함께 이혼을 고민하던 중 귀책사유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변장'이라도 해서 내가 직접 꼬셔라. 외도만큼 확실한 이혼사유가 없다'라는 친구의 말에 이수진은 브라이언(김성철)을 찾아 특수분장을 알려달라고 했다.

그는 손예림(김가은)에게 특수분장을 배워, 손수 특수분장을 하며 남편을 속이기에 나섰다. 이수진은 특수분장을 한 채 세탁소를 걸어가 권도훈의 옆을 지나갔고, 권도훈이 그를 쳐다보며 방송은 마무리 됐다.

이별 후에 다시 사랑에 빠진 두 남녀가 여제의 기억과 내일의 사랑을 지켜내는 로맨스를 그린 '바람이 분다'는 시작 전부터 대한민국 대표 멜로장인 김우성과 김하늘의 만남으로 주목을 받았다. 키스 먼저 할까요? 로 지난해 SBS 연기대상을 거머쥔 김우성, '공항 가는 길' 이후 오랜만에 인방극장으로 복귀한 김하늘의 연기력에 힘입어 짙은 멜로를 선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던 터.

그러나 '바람이 분다' 1,2화가 각각 베일을 벗었지만 예상치 못한 소재와 전개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첫방송에서는 김우성의 알츠하이머

병력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되는 부부의 갈등은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갈등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그려내는지 가 관건으로 꼽힌 상황이었다.

이후 2화에서는 그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모습이 공개되면서 다시 한 번 반등하는 듯 했다. 하지만 여기서 등장한 것은 다음 이인 '특수분장'이었다. 귀책사유를 만들기 위해 직접 특수분장을 해 남편을 유혹하려는 모습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었다. 특히 멜로를 기대했던 시청자들은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알츠하이머와 특수분장은 전혀 상반되는 소재가 만나면서 극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하지만 앞서 제작발표회에서부터 정경화 감독과 김우성은 예측할 수 없는 전개에 대한 힌트를 전했다. 정경화 감독은 "알츠하이머인데 저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라는 생각도 있다.

알츠하이머에 기억을 잃는다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있으니 기대해달라"고 당부했던 바. 이제 막 출발을 앞둔 '바람이 분다'가 신선함과 생소함 사이에서 어떻게 시청자에게 설득력을 선사할지 궁금증이 높아진다.

한편 '바람이 분다'는 매주 월, 화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



"새 멤버X새 미션"

강력해진 '더 잔내투어' 오는 6월 17일 첫방송

새로운 멤버들과 한층 업그레이드 된 여행을 떠날 '더 잔내투어'가 오는 6월 17일(월) 밤 11시 첫 방송된다.

지난 2017년 첫 선을 보인 '잔내투어'가 '가성비 갑' 럭셔리 여행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은 데 이어, 월요일로 편성시간을 바꿔 방송되는 '더 잔내투어'에는 원조 출연자 박명수와 개성 강한 새 멤버들, 한 해진과 이용진, 규현이 합류해 활기 넘치는 여행으로 시청자들의 필요성을 말끔히 날려줄 전망이다.

'더 잔내투어'는 잔내라는 예산으로 가성비로 잡았던 전 시즌과 달리, 쓸 때는 쓰는 여행으로 멤버들의 갈등을 해소해줄 예정이다.

미술관 레스토랑, 초호화 테마파크, 럭셔리 숙소까지 설계할 수 있는 가성비 투어를 신설하는 것. 하지만 모든 멤버들이 제작진의 미션을 통과해야만 즐길 수 있는 혜택으로, 미션을 깨기 위한 모습이 또 다른 '잔내'로 웃음을 안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타공인 연예계 여행 매킨으로 꼽히는 새 멤버들이 비판받고 싶은 여행지, '술겨진 보석같은 소도시 투어'를 설계하며 더욱 다채롭고 신선한 투어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박명수와 한해진, 이용진, 규현의 여행 궁합이 어떨지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첫 만남 자리에서 멤버들은 각자의 강한 개성만큼 독특한 여행 스타일을 서로 소개했다.

어디에 가든 '자유'의 여신상이나 '에펠탑' 같은 랜드마크를 꼭 봐야 한다는 이용진의 말에 한해진은 "파리를 3년간 왔다갔다 하면서 에펠탑 한 번도 안봤는데, 올해 처음 가보니 너무 예뻐졌다. 점점 그런게 좋아지고 있다"고 호응했다. 박명수가 "나는 잘 안 나갈 거 같다"고 하자, 한해진은 "저희가 지게에 지고 가드릴게요"라는 초강수로 물리치며 '박명수 수난시대'를 예고했다.

한편, 박명수는 새 시즌이 무척 한 마음집을 밝혀 멤버들의 원성을 샀다는 후문이다. "이번엔 유박지르거나 호통치지 않고 칭찬 위주로 하려고 마음 먹었다"며 남다른 각오를 밝힌 박명수는 "하지만 더운 나라를 가거나 힘들면 그게 마음대로 안되지 않냐고 덧붙여 멤버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고. "마음 속의 성질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말씀 아니냐는 이용진의 지적에 박명수는 "그거 버리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라고 말해 폭소를 안겼다.

가성비는 기본, 가심(心)비까지 잡을 tvN '더 잔내투어'는 오는 6월 17일(월) 밤 11시 첫 방송된다.

뉴스

'스태이지K' 엑소, 9번째 드림스타로 출연

'케이팝 킹' 엑소가 JTBC '스태이지K'의 이홉 번째 드림스타로 출격한다.

엑소는 최근 JTBC 글로벌 케이팝 챌린지 '스태이지K' (연출 김보은 김하민)의 드림스타가 되어 어느 때보다 열띤 팬들의 응원 속에 녹화를 마쳤다.

'케이팝 킹'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엑소인 만큼, 녹화 소식 또한 팬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날 녹화 현장에서도 엑소 멤버들을 목격할 후기가 다

수 올라올 만큼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다.

2012년 데뷔 이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엄청난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 엑소는 발표하는 곡마다 음원 차트를 휩쓰는 최고의 보이그룹이다. 또한 엑소는 '1억뷰 뮤직비디오'를 총 10편이나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한류스타이기도 하다.

'Monster', 'CALL ME BABY', 'Ko Ko Bop' 3편은 2억뷰를 넘겼고 '으르렁', '중독', '늑대와 미녀',



'Lotto', 'LOVE ME RIGHT', 'Tempo', 'Love Sha' 까지 7편은 1억뷰 뮤직비디오의 자리에 올라 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그룹인 만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무대에 오르기도 했으며, 한국 아이돌로서는 유일하게 한류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한 K팝스타 공식 기념메달 1호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엑소가 출격하는 JTBC '스태이지K'는 케이팝을 사랑한 나머지 한국마저 좋아하게 된 전세계 케이팝 팬들이 꿈에 그리던 드림스타와의 무대를 위해 선의의 케이팝 댄스 국가대항전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JTBC '스태이지K' 9회 엑소 편은 6월 9일 일요일 밤 9시 방송된다.

국민 여러분, 통과하고 짜릿했던 9주

KBS 2TV 월화드라마 '국민 여러분!'이 유쾌한 웃음과 통쾌한 사이 다를 선사했던 지난 9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28일 방송된 최종회는 전국 8.0%, 최고 8.8%의 시청률 기록, 유종의 미를 거뒀다(닐스코리아, 전국기준).

최종회에서는 국회의원 양정국(최시원)이 사기꾼 출신으로 많은 범죄를 저질렀던 과거를 솔직히 밝혔다.

또한, 박후지(김민정)를 잡고 '대부업 이자제한법 폐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검찰에 자진 출두해 모든 죄를 인정했고,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본회의에서 "국민만 생각

하고,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라"고 외쳤다.

비록 국회의원이 아닌 사기꾼이었지만, 그 어떤 국회의원보다 국민들에게 예의를 지키는 모습으로 안방극장에 통쾌한 사이다와 짜릿한 감동을 선사했다. 지난 9주간 '국민 여러분!'이 남긴 여운을 되짚어봤다.

매력적인 배우들의 총집합으로 방송 전부터 시선을 모았던 최시원, 이유영, 김민정, 태인호, 배태랑 사기꾼, 사기꾼과 결혼한 열혈 경찰 미스터리한 사제업자 등 '국민 여러분!'에서만 만나 볼 수 있었던 범상치 않은 캐릭터들을 완벽하게 소화

해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먼저 배태랑 사기꾼 양정국으로 첫 등장했던 최시원은 "쓸모 있는 정치"를 외치는 용감한 국회의원으로 변화하는 훈훈한 성장기를 보이며 극을 이끌었다.

열혈 경찰 김미영 역의 이유영과 사제업자 박후지 역의 김민정은 그간 본격 없는 강렬한 카리스마로 "킬러로서의 새로운 계보를 썼다"는 평을 얻었다.

또한, 엘리트 정치인 한상진 역을 맡아 노련한 연기로 극의 중심을 잡은 태인호를 비롯해, 김의성, 길해연, 우현, 박경태, 허재호 등 믿고 보는 연기와 배우들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등장하는 순간마다 극에 유쾌한 재미를 선사했다.

배태랑 사기꾼이 국회의원에 출마해 벌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막을 올린 코믹 범죄극 '국민 여러분!'은 매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개로 월요일, 화요일 밤의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평생 사기꾼 지던 정국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는 과정, 실제 선거 거보다도 더 짜릿했던 선거 레이스, 국회의원 당선과 함께 국민 여러분을 위한 정치를 펼쳐려 노력했던 과정, 사기꾼이란 진실을 밝히고 죄값을 치르게 되기까지, 독특한 소재가 반전을 거듭하는 전개 속에 녹아들며 완벽한 시너지를 발휘했고, 그 결과 안방극장엔 통쾌한 바람이 불었다.

'국민 여러분!'은 정치를 주제로 하는 드라마라면 흔히 떠올리는 높

은 진입장벽과 진중하고 계몽적인 분위기에서 탈피한 점에서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사기꾼 양정국은 자신과 사랑하는 아내 미영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뿐, "정치를 잘 모르고 정치에 흥미도 없는" 인물,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 뽀얏지만, 자신만의 이득을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며 우리네와 동일한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분노했고 혼내줬다.

"나 같은 놈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나?"라고 스스로도 의문을 가졌던 인물을 통해 "국민만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 것. 정국의 여정을 함께한 국민 여러분이 드라마에 공감했고, 박수를 보낸 이유다.

오늘의 순세 2019년 5월 30일 목요일 (음력 4월 26일)



▶**경미** 상대는 갈등 속에 그대를 주시하고 있다. 변동하고자 하는 일 혼자서는 힘겨우니 3, 4, 12월생과 함께하라. 행운이 당신의 품에 안기겠다. 성급한 행동은 금물. 바, 오, 승성씨 서로 진정성이 필요한 때이니 진심을 드러낼 것.



▶**계미** 지난친 자신감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라. 이익을 노리는 속은 다 다르다. 앞길을 내다보기 힘들구나. 진실만이 성공의 지름길임을 알 것. 1, 3, 4월생 순간적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 검정 말고 푸른색으로 자신을 지킬 것.



▶**정미** 자기 것이 아니면 만지지도 보지도 말라. 아니면서도 좋은 척 좋으면서도 싫은 척 하다가 망신당할 수. 언제나 자기주관대로 생활하라. 2, 7, 11월생 남에게 잘해주는 것은 좋지만 실속을 차릴 때다. 동, 남쪽이 길.



▶**진미** 혼자 하는 일 힘겹고 중단할라. 3, 10, 12월생 동업자를 찾아 제도전하면 변할 수 있는 운. 행과 불행은 마음에 달린 것. 바, 천, 오성씨 용기를 갖고 자신있게 전진하라. 북, 서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수. 스스로를 다스릴 때 웃음꽃 핀다.



▶**유미**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 눈을 뜨고 있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격.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상대의 말을 생각할 것. 기, 사, 천성씨 상대는 갈등 속에 그대를 보고 있음을 알라.



▶**진미** 생각한 일들이 쉽게 풀리지 않으니 가정 불화가 심화될 듯. 모든 것 다 털어 놓고 지금의 상황을 가족과 함께 의논하여 해결책을 찾아라. 오, 천, 승성씨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해야만 이 역경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정미**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 기본 내키는대로 한 말 때문에 뜻이 땅으로 떨어질 수. 4, 7, 9월생 욕심은 금물. 하나만 만족할 것. 양, 쥐, 범미가 당신을 보고 있다. 있는 자리 그대로 유지함이 좋겠다.



▶**정미** 남들과 달리 몸도 마음도 바쁜 휴일이다. 토끼, 돼지 띠 눈치를 보면서 시달리는 격. 다만 한 우물을 판 자에게는 즐거움 날이겠다.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면 좋은 성과가 있게 마련이라는 점 잊지 말 것.



▶**유미** 때에 따라서 자존심이 무기가 될 수 있다. 고집을 버리는 것이 내일을 위함이다. 2, 4, 7, 9, 11월생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직업 변동은 7월 안에 갈한 쪽으로 이뤄질 것이다. 애정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을 때가 대운이다.



▶**정미** 남에게는 자기 것 모두 주면서 가족에게는 냉랭한 성향을 바로잡아라. 기, 사, 천, 승성씨는 승진 아니면 영전수 있다. 사업자라면 동업자가 없어야 행운이 기드네. 삼재 운운하며 겁을 줘도 무시하라. 걱정할 필요 없다.



▶**정미** 남에게 줄 것은 없고 받을 것만 있다고 생각하라. 주변정리에 바쁘겠다. 2, 3, 10월생 뭔가 찾으려면 멀리 가지 말라.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라. 1, 9, 12월생 동기간에 언행 조심하지 않으면 후주머니에 있는 것 다 내준다.



▶**정미** 작년에 완성 못한 것 좀 더 지연되겠다. 여성이라면 하는 일 더욱 발전한다. 놓고 있었던 뭔가 잡아서 바쁜 날이 되겠다. 2, 9, 12월생 애인 만날 수 있다. 마음의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하니 스스로 되돌아보는 것이 좋겠다.